

青 “여야정협의체·회동, 5당 체제로”

정의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에 제안한 대통령·여야대표회담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회동은 문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독 회담으로 여야정협의체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을 제외한 3당 체제로 열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고민정 정의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추경과 민생 협안 등 국회에서 압법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그런 만큼 지난해 11월 이후 멈춰버린 여야 5당의 여야정국정 상설협의체가 재개동의지를 강조하고자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여야정협의체 참여 대상에서 정의당과 평화당을 제외

“여야5당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동 간곡히 요청”

“한국당, 회동에 동참하길”…1:1 회담 요구 거절

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요구에 대한 질문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진 협의체다. 지난해 11월 합의를 통해 도출한 바 있다. 그 원칙적 입장에 대해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사실상 한국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고 대변인은 “한국당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다른 소통 채널을 마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시작되고 이후의 과정들이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국정 현안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의체인

만큼 거기에 대해 공감한다면 함께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에 대해서 간곡히 요청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바”라고 강조했다.

정의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회동의 의제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참석 대상은 여야 5당 대표가 돼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고 대변인은 “이미 제안한 바 있는 5당 대표 회동도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당 대표 회동이 민족 인도적 대북식량지원 문제를 비롯한 국정 전반으로 의제를 넓혀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져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처음에 문 대통령은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국회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그래서 (대표 회동을) 제안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야당은 국정 전반으로 의제를 넓히길 요청했고 그래서 의제를 넓히는 상황에서 5당 대표 회동을 제안드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한국당의 1대1 회동 제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5당 대표 회동에 함께 해주길 희망하는 바”라고 답했다.

5당 대표 회동이 이뤄질 경우 문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1대1 회동이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가정 하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평화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가 황주홍 후보와 함께 꽃다발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영 대표, 황주홍 후보,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 장병완 전임 원내대표.

유성엽, 평화당 새 원내대표

“민주당 2중대 소리 없을 것”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의 유성엽 의원이 선출됐다. 유 의원은 취임 일정으로 “오늘부터 민주당 2중대 소리를 들던 평화당은 없다. 치열한 원내투쟁을 통해 강한 존재감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신임 원내대표는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재구성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아니고, 우리보다 적은 여섯 명인데도 지지율이 높지 않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평화당의 지지율이 자동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며 “지지율을 위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단체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구성하더라도 정의당과는 비판적인 방향이 아니다”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면 더더욱 그렇다. 교섭단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조금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3지대의 제대로 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유 신임 원내대표는 여야 4당 합의에 따라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는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제는 절대 안 된다. 의회비를 동결하더라도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정 기간 이후 표결을 할 때에도 패스트트랙에 상정한 안이라면 부결시켜야 한다. 부결 전에 최대한 각 당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며 “의석수를 316~317석으로 (16~17석) 늘려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선거구 획정 기준을 너무 인구기준으로만 하는데 행정구역도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고 추경안이 빨리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주말은 광주 민주화 운동 39주년으로 각 당 대표들이 광주 행사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식량 사정이 안 좋아 인도적 지원을 일부 부여해 줄 수 있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지원을 국회에서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한국당의 정의당과 정부여당에 대해 “국회의원과 대표들은 국회를 버리고 장외로 나갔다”며 “그리고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막말로 국민의 귀를 더럽히고 있다. 요즘 인터넷 시대에 별의별 막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정치인은 인터넷 막말을 따라 갈 것이 아니라 격조 있는 말로 국민의 언어를 순화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서 대북지원, 대북관계 개선 등이 국론 분열과 남남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국론이 통합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정치력 회복을 위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을 취하해주시고 정치가 다시 원만하게 평화롭게 이뤄질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주길 부탁드린다”고 이해찬 대표에게 당부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민들의 밤”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에서 문희상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초월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미래당 손학규, 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했다.

는 일이 무엇인가. 선거제 개혁이 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제를 페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본격 논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논의가 실종돼 안타깝고 하루 빨리 국회가 북원해서 선거제 개혁 퀀터스 입법정부 수립 100주년 원 푸인트 개헌, 대한민국 권력을 나누는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대북식량 지원 논란과 관련,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상황과 분리하는 게 대원칙”이라며 “북한 식량 130만t이 부족하다는데 인도주의 문제와 정치군사 문제를 분리하는 원칙으로 북한과 대화하고 그렇게 조성된 분위기를 가지고 비핵화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날 문 의장과 여야 4당 대표들은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민생 투쟁 대장정 일정을 이유로 사전에 문 의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함께 권리구조개편 논의를 같이 해야 한다”며 “실제 체감 경기가 훨씬 심각하니 적극적인 경기부 양책을 통해 중소기업 자영업자,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년층, 비정규직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 정치를 만들고 추경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의장과 여야 4당 대표들은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민생 투쟁 대장정 일정을 이유로 사전에 문 의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임로 340번길 5
TogeToge 광산구